

MB “최종 물증 나올때까지 신중해야”

정세균 “관련자 문책하고 국정조사 등에 野 참여를”

여야 청와대서 천안함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나라당 정몽준, 민주당 정세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대표들은 천안함 침몰사태의 엄중함에 공감하면서도 수사책이 있어 엇갈린 해법을 제시하는 등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여러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결론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최종 물증이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 신중하게 가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미 내부 폭발이 아니라 외부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됐다”며 “어쨌든, 기뢰든 무슨 조각이 나와야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것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방안전화원회를 만들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 북풍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며 “그러나 내가 북풍을 하겠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낮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여야 3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음부터 북한 소행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느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안하려고 신중히 하고 있으니 야당 쪽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야 3당 대표는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안보태세 강화 등 총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지만 사태 수습을 위한 각론에 있어서는 엇갈린 해법을 제시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우선 정세균 대표는 미국에서 9·11 테러 후 여야 동수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직됐고 1986년 헬리콥터 폭발참사 후에도 항공우주국(NASA) 당국

자가 조사단에 배제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국정조사 노력을 비롯해 야당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초당적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의견이 흘러가면서 ‘선(先) 진상조사특위, 후(後) 국정조사’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 문책을 둘러싸고도 견해들이 엇갈렸다. 정세균 대표는 “사고가 난지 25일

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쯤은 드러난 문제만 갖고도 문책을 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반면 이 대표는 “문책은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조사 단계에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특히, 이회창 대표는 북한 개입시 강경 대응책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는 당연히 하고 남북 항해해운사상 통항도 제한해야 한다”며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물론 개성공단도 전면 중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선거 ‘盧風’ 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맞아

내달 한달간 서울·광주 등서 추모 행사

오는 5월23일 고 노무현 전 16대 대통령의 서거 1주기를 맞아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추모식, 추모 콘서트,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상임이사 겸 운영위원장은 20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 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주기 추모행사 계획을 밝혔다.

서울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강남역 사거리 근처 ‘루미나리’에서 추모 그림·판화·만화 등과 시민들이 제작한 추모 기록물이 전시된다. 이 전시회에는 고인이 착용했던 밑짚모자·웃가지 등 유물이 전시된다. 이 추모전 시회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봉

하마을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또 다음달 8일부터는 서울(8일)·광주(9일)·대구(10일)·대전(16일)·부산(23일) 등 전국 5대 도시에서 1주기 추모콘서트 ‘Power To The People 2010’가 열린다. 이 콘서트에는 YB밴드(윤도현밴드), 강산에, 안치환과 자유, 노래를찾는사람들, 우리나라 등이 출연한다.

봉하마을에서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1주기 추모식이 서거 장소인 부영이바위 아래에서 열린다.

방송인 김재동이 사회를 보며 동영상을 상영, 추도시 낭송,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식에 앞서 시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식전 문화행사와 전야제도 계획돼 있다. 봉하마을에는 다음달 16일까지 생태산책

길이 조성되고 묘역완공식도 치러진다.

이에 앞서 오는 24일에 노 전 대통령의 출생과 서거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기록한 자서전도 출판된다. 책 제목은 유서의 한 대목을 인용해 ‘운명이다’로 정했다. 또 다음달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추모학술 심포지엄이, 17일에는 인터넷매체 합동 토론회를 가진다.

전국 행사와 별도로 광주에서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추모기간이 선포되고 분향소가 설치 운영된다.

문 상임이사는 “혹시라도 이런 추모 행사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거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자 한다”며 “자서전 출판 후 여러 권의 책이 출판되지만 기념회를 한다든지 하는 행사는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전남지사 경선 ‘깨끗한 승복’

탈락 후보들 승자에 축하 인사... 민주당과 대조

광주·전남 지역의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놓고 온갖 잡음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이 공천결과에 깨끗이 승복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안방’이라고 할 광주·전남에서 공천과 관련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했던 김문일·정훈 후보는 20일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대식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순천시 연합동 김대식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찾아가 축하인사를 한 뒤,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문일 후보는 “승자인 김대식 후보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경선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한 나라당이 전남지역에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뜻을 모으겠다”고



한나라당 전남지사 경선에 참가한 정훈·김대식·김문일(왼쪽부터) 후보가 20일 순천시 연합동 김대식 후보 사무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밝혔다. 그는 “정당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도 아프고 힘들기는 하지만 추후도 주저함 없이 다시금 한나라당 당원 풍지, 그리고 전남도민들의 곁에 서 있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도 “여론조사 경선에 승복하고 당원으로 돌아와 지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김대식 후보에게도 “진심으로 축하하며 도민과 당원의 염원을 명심하고

전남을 위해 힘 쏟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허약한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경선을 통해 광역단체장 후보를 뽑겠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받았다”며 “TV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간 정책대결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여줘 두자릿수 득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0억 들여 불꽃놀이라니... 北 정신 차려야”

‘장애인 행복음악’ 발표

李大統領 민주평통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북한이 최근 김일성 주석 생일(대양절·4월15일)을 앞두고 성대한 불꽃놀이를 한 것과 관련, “나는 북한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통 북미주 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원을 들여 (김일성 주석)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

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면서 “나는 북한이 바르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고급자동차를 수입해 (주요 간부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면서 “(북한 정권이) ‘폭죽을 쏘려고 했는데 국민이 어려우니 안쓰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종종 북한 주

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북한 정권을 비판해 왔으나 이처럼 공개석상에서 직접적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측 반응이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덴마크 방문중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당장 배가 고파서 탈북자가 나오고 또 나와서도 다른 나라를 전전하며 고초를 겪고 있다. 같은 민족의 고통에 나는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8대 행복음악’을 발표했다.

6·2 지방선거에 대비,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음악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18세 이상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100분의 70 이하인 자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4분의 1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선거차량



음향차량, LED차량(1.5t, 2.5t, 5t)

선거홍보물 기획/제작/시공대행
www.jwad.co.kr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광고대행사
주정원애드 062)382-2285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음성 채팅의 지원

광주, 전남 최고!
전통성인 커뮤니티

3년 전통의 최고의 서비스
국내는 물론 해외 교포들과도 직접 연결됩니다.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수도 있습니다! 무임입니다.
민나시 못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도 운영입니다.

지금당장 확인하세요
전화번호 연결

전국 최저
요금제 이용!!

1588-3533

*여성은문의 무료 전화번호를 알려 드립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린공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히트폰

전화정보(AFS) 사업자 모집 | 무자본, 무정모 의욕만 있으면 쉽다 010. 3808. 2888

한국부동산컨설팅

구 합

- 삼거동 - 5000평이상/관리지역/차량진입가능
- 연산동 - 요기동(20-25만원)/800평정도/투자용(그린벨트상관없음)
- 벽진동 - 참고용지/500평정도
- 마트자리 - 10억(현금6억)

매 도

- 삼거동 - 2만3천평/상당후결정
- 선암지구 - 1850평/40억 /대로집
- 중흥동 - 200평/대로집(100%대출가)상당후결정
- 산수동 - 215평/6억5천/대로집(100%대출가)
- 내방동 - 280평/7억8천/대로집(100%대출가)
- 담양대덕면매산리 - 3000평/물류센터적합/대로집(100%대출가)
- 우산동 (광송간 도로) - 800평정도/65만원(평당)
- 광산구 신동동 - 1500평/50만원 도로집(물류창고 적합)
- 만평 품암지구 수완지구
- 상무지구 주유소 - 약 350평/매매11억/공시지가5억 7천만원

한국부동산 컨설팅

서구형 맞은편(1층·2층)

010-3286-6680, 366-7935

<아파트, 분양권, 대물상담>